

보도시점 2025. 2. 20.(목) 11:30
(2024. 2. 20.(목) 석간)

배포 2025. 2. 20.(목) 09:00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인공지능역량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

-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범부처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 발표

- ▶ **(컴퓨팅기반)**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 1.8만장 확보,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및 입자전력 제도개선
- ▶ **(인공지능 모형)**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연구비 전폭지원으로 세계 최고 대형언머모형(LLM) 개발
- ▶ **(인공지능 인재)**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챌린지·AI프론티어랩) 등 최고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 ▶ **(선도과제)** 우리 인공지능 인재가 개발한 우리 인공지능모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5년 2월20일(목), 10:00~11:30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
- **(의의)** 최근 급변하는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 동향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참석)** 정부 : 권한대행(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0여명
민간 : 염재호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등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0명

이번에 발표된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컴퓨팅 기반(인프라) 종합대책'을 덩시크 돌풍을 계기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방안은 이번 주 월요일에 개최된 '제3차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인프라) 특별위원회'(2.17)와 그 다음 날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2.18)를 통해 논의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범부처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배경 》

미국, 유럽연합, 프랑스 등 주요국이 수 백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딥시크가 효율적 연산방식(알고리즘)을 통해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 모형 구현에 성공하면서 기존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기반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하였다.

* ▲(미국) ‘스타게이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 투자 ▲(유럽연합) ‘AI기가 팩토리 사업’ 포함 약 300조 원 투자 ▲(프랑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163조 원 투자

《 추진 방향 》

‘딥시크 돌풍’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고,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선도과제를 추진하여 국산 인공지능 서비스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 6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3대 추진 전략, 6대 핵심과제 >

추진전략	핵심과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가동 ②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 ③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지원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① 혁신적인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개발 지원 ② 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① 분야별 선도과제 추진

《 세 부 추진과제 》

전략 1.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첫째, 즉시 → 단기 → 중장기 3단계에 걸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현장에 시급한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이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한다.

* H100 880장 중 정부가 416장 확보,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중

** 고성능컴퓨팅자원(25년 198억 원), 인공지능 연구용컴퓨팅자원(25년 신규 90억 원) 등 민간자원 임차 확대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1.8만 장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충한다. 그 중 1만 장은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확보하고, 나머지 8천여 장도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둘째, 민간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 인공지능 연구·인력개발(R&D 등, 우대 공제율 : 30~50%), 인공지능 통합투자(인프라 등, 우대 공제율 : 15~35%)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시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예 : 정책적 평가항목 점수우대 등)를 검토하고, 항만배후단지, 공항지원시설 등으로 입지 다변화, 승강기·미술품 설치 최소기준 적용(현행법령 내) 등 전력·입지·시설에 관한 제도개선 등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개방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규모 고성능 체계의 최적 운용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수요 창출과 동시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전략 2.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첫째,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독자적 인공지능 모형 경쟁력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인공지능 국가대표 사업인 ‘(가칭) 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 WBL)’를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발하고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 등 핵심 기반을 전폭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인재가 팀을 이뤄 겨루는 대규모 행사인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글로벌 AI 챌린지)’도 개최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분야 석학들과 대국민 평가 등을 통해 최고 인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창업 지원이나 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BL) 정예팀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둘째, 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체제도 고도화한다. 작년 뉴욕에 개소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 프론티어랩)’를 영미권을 넘어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인공지능 신진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이 원하는 실전 역량을 갖춘 최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재·수업 없이 실전형 혁신 교육을 지원하는 ‘혁신 교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을 확대하고, ‘기업-대학 협력형 인공지능 전환(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대학 공동으로 설립하여 인공지능 + 모든 것(AI+X) 교육과정 운영, 기업 연구자의 교원 겸직 등 협력

세계적 우수 인재 유치도 대폭 지원한다. 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BL) 사업과 연계하여 정예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제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인건비, 연구비, 체재비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략 3.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우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통해, 우리 인공지능 인재가 개발한, 우리 인공지능 모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수한 국산 인공지능 모형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의 독자적 특화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맞춤형 치료·건강관리), 법률(대국민 법률정보 제공), 공공(행정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과제를 추진한다.

< 분야별 주요 선도과제 내용 >

교육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확산
의료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산
매체·문화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실증
법률	대국민 법률 정보제공·서류작성 지원 및 전문가 업무보조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실증
학술	학술 활동 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실증
재난·안전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활용성 제고 및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확산
공공	협업 기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확산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패권경쟁은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는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대응이 1년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이 뒤처진다는 각오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과 핵심인재 육성·확보에 전폭적이고 속도감 있는 투자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임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미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하는 등 국가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 보도자료는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디지털 분야 구호인
기치 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정책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

총괄 담당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윤두희 (044-202-6120)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21)
		담당자	사무관	최문석 (044-202-6122)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 (044-202-6124)
		담당자	사무관	양윤아 (044-202-6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담당자	과 장	장기철 (044-202-6360)
		담당자	사무관	이현우 (044-202-63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44-202-6290)
		담당자	사무관	강수현 (044-202-62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민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이연규 (044-202-6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220)
		담당자	서기관	김광년 (044-202-6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영길 (044-202-6420)
		담당자	사무관	황원준 (044-202-6423)
공동 담당 부처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안경우 (044-215-4551)
공동 담당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03-4130)
		담당자	서기관	윤영범 (044-203-4131)
공동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기욱 (044-200-5910)
		담당자	사무관	박성우 (044-200-5920)
공동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예술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현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이홍재 (044-203-275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1 컴퓨팅 인프라 확충

공공·민간의 GPU자원 대폭 확대

- 첨단 GPU 1.8만장 확충(~'26.上)
(국가AI컴퓨팅센터 1만장, 25 / 8천장 규모 슈퍼컴8호기, 26.上)

국산AI반도체 성장 지원

- 글로벌 수준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 패키지 도입·확산 통한 국산AI반도체 실증

민간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

- AI를 조특범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지원 강화

연구개발인력
30~50%

동합투자
15~35%

- 항만**
배후단지
입지 가능
- 공항**
공항구역 내
입지 가능
- 시설**
송강가·미술관
설치기준 최소화

2 첨단 AI 모델개발

'World Best LLM(WBL)'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AI 챌린지(AI Champion) 개최



3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최고급 AI 인재 자원 강화

- 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
현재 (미국 (24~28.450억원)) → 확대(예시) 유럽 (중동)
파격적 인센티브
· 과제당 연20억원(4~2년)
· 25년 60억원
- 신진연구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추진
기업·대학
AI+X
공동 교육과정
기업 연구자
교원 겸직

기업이 원하는 AI인재 육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실전형 혁신교육
교사 **○** / **○** / **○**
교재 **○** / **○** / **○**
수업 **○** / **○** / **○**

해외 우수 AI인재 유치

- 연구비 지원 확대 검토
AI분야
석학·우수연구자
현장수요 맞게 유치확대
(WBL, 기존 사업 등 연계)

4 선도 프로젝트

우리 AI 인재가 개발한 우리 AI모델로 국가 AI 전환 가속화

- 학습·교육**
 - 학술 활동 지원 AI 서비스
 - AI 디지털 교과서
- 의료**
 -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서비스
- 미디어·문화**
 - 창작 활동 보조
 - 영상 편집 AI 서비스
- 법률**
 - 대국민 법률정보·서류작성 지원
 - 전문가 업무보조 AI 서비스
- 재난·안전**
 - AI 안전연구소 중심 글로벌 공조
 - AI CCTV 활용 제고 및 국산AI반도체 확산
- 공공**
 - 협업 기반 공공 AI 서비스
 - 초거대AI 기반 마련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안)

2025. 2.



관계부처 합동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안) [요약]

I 추진 배경

- 글로벌 AI패권경쟁, ‘딥시크’ 돌풍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
 - 미국 新정부는 AI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 투자(‘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분야의 압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1.21)
 - * ▲(EU)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 포함 300조원 투자(‘25.2) ▲(佛) ‘AI데이터센터’ 163조원 투자 (‘25.2)
 - 한편, 중국 딥시크는 효율적 알고리즘(강화학습, 전문가 혼합 모델 등)으로 고성능 AI모델을 구현함으로써, AI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1.20)
 - * 對中 수출 통제 등 제약 속에서도 알고리즘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AI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
- 국내 AI산업 성장 추세, 한층 도약을 위한 파격적 지원 필요
 - 글로벌 순위에서는 절대적 우위인 미·중을 제외하고, 싱·영·프와 3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 AI기반모델 보유(10개)** 등 잠재력 보유
 - * 스탠포드, 옥스퍼드, 토터스미디어,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 주요기관 지표 종합 고려
 - ** (‘24.5. 美 스탠포드 大) 1위 미국 (133개), 2위 중국 (55개), 공동 3위 우리나라·이스라엘(10개)
 - ‘딥시크’ 혁신은 국내·외 AI기술발전 속도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나라도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재정 지원 강화 필요

II 우리의 현주소

- (AI인프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보·지원해 왔으나, 국내 보유한 AI컴퓨팅 자원은 고성능 AI모델을 개발하기에는 매우 부족*
 - * ‘23년 국내 전체 H100 약 2천개(‘23, AI산업실태조사) / 메타 15만개, MS 15만개 등(‘23.11 옴디아)
- (AI모델) 자체 AI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나, 최고기술선도국인 美 대비 여전히 1년 이상 격차 유지, 유럽에 비해 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
 - * 美 대비 기술격차 : 한국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 (‘24.3 IITP)
- (AI인재) 첨단 AI알고리즘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는 고급인재*가 부족하고, 상위1%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어려운 실정**
 - * 세계 상위 20% AI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수준(중국 47%, 미국 18% 등)(‘22년 매크로폴로)
 - ** 박사급 AI연구원 초봉(‘24, 로라, 억원) : (해외A사) 12.6, (해외B사) 12.4, (국내S사) 4.14

Ⅲ 추진 방향

◆ ‘딥시크 돌풍’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계적인 AI모델 개발, 고급AI 인재 양성, AI전환 등 추진

전략1 AI개발의 필수 전략 자원인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전략2 역량있는 AI인재·기업 집중 지원으로 세계적 AI모델 개발

전략3 국가 AI컴퓨팅 확충으로 개발된 AI모델로 국가 AI전환 가속화

비
전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AI G3 도약 실현

추진전략

핵심과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 ①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 플랜 가동
- ② 민간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
- ③ 국산 AI반도체 성장 지원

차세대
AI모델 개발

- ① 혁신적인 AI알고리즘 개발 지원
- ② 고급 AI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AI전환 가속화

- ① 분야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Ⅳ 세부 추진 과제

전략1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 (국가적 확충) 즉시→단기→중장기 3단계에 걸친 마스터플랜 이행

① (즉시) 국내 공공·민간 GPU 자원(광주AI데이터센터*, 민간클라우드** 등)
활용 확대 → 당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 대응

* (광주AI데이터센터) H100 880장 中 정부가 416장 확보, 국내 산학연 AI 기술개발 지원 中

** 고성능컴퓨팅지원(25년 198억원), AI연구용컴퓨팅지원(25년 신규 90억원) 등 민간자원 임차 확대

② (단기) '26년 상반기까지 첨단 GPU 1.8만장 분 AI컴퓨팅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확충하여, 국내 AI 기업과 연구계 경쟁력 조속 뒷받침

- (연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첨단 GPU 1만장* 분 확보 추진, 국가 AI컴퓨팅 센터 조기 가동

* 예를 들어,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수량(H100 기준 2천장 소요)을 10개 기업에 지원(반기)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만장의 H100 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0.8조원 수준 소요 전망

- ('26.上) GPU 8천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 구축 → 연구계 중점지원

③ (중장기)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본격 가동하고(연내 GPU 1만장 확보 등 기반 조기구축), '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비중 50% 달성 추진

○ (민간투자 촉진) 세제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세제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AI R&D, AI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R&D: 30~50%, 투자: 15~35%)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18)

- 전력·입지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검토*와 AI데이터센터 입지·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예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정책적 평가항목 점수 우대 등

** 항만 배후단지에 입지 가능화 / 공항구역 내 입지 가능/ 승강기·미술품 설치기준 최소화

○ (국산 AI반도체 성장 지원) 국산 AI반도체 기반 대규모 고성능 시스템의 최적 운용을 위한 글로벌 수준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분야 전반으로 국산 AI반도체 + AI모델(LLM 등) 패키지 도입·확산하여 국가 AX 기반 마련 및 대규모 수요 창출 추진

전략2 차세대 AI 모델 개발

○ (AI모델) 국가 AI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독자적 AI모델 경쟁력 확보 본격 추진

- (단기) 글로벌 Top 수준의 AI모델 신속 확보를 위해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집중 지원*하는 'World Best LLM(WBL)' 프로젝트 추진 및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가칭 "AI Champion") 개최

*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및 첨단 GPU 전폭 지원

- (장기) 1조원 규모 범용인공지능(AGI) R&D 추진* 등 초거대 언어 모델(LLM)을 넘어 차세대 AI 원천 기술 확보

* '25.1.24. 예타 대상 선정('26~'32년(7년) / 총 9,313억원 요구(국고 8,875억원, 민자 438억원))

- (인재) 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미국→유럽, 중동 등) 추진, 기업+ 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추진 등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 기업, 대학 공동으로 설립하여 AI+X 교육과정 운영, 기업 연구자의 교원 겸직 등 협력

- 대학, 기업 등이 AI 해외 석학 등 글로벌 AI 핵심인재 유치 시 연구비 등 지원 확대 검토

전략3 AI전환 가속화

- (선도프로젝트) 우리 AI컴퓨팅 인프라와 인재들이 개발한 AI모델로 AI전환을 가속화 할 선도프로젝트 추진

< 분야별 주요 선도프로젝트 내용 >

의료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산
미디어·문화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실증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기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법률	대국민 법률 정보제공·서류작성 지원 및 전문가 업무보조 AI 서비스 개발·실증
학술	학술 활동 지원 AI 서비스 개발·실증
재난·안전	AI CCTV 활용성 제고 및 국산 AI 반도체 확산
공공	협업 기반 공공 AI 서비스 도입·확산

V 추진체계

-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추진 방안 논의 및 이행 점검 추진
 - 위원회 산하 분과위를 통해 ‘핵심과제’ 추진 방안 및 ‘선도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
 - 각 부처는 추진현황과 부처 협력 필요 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반기별)